



SHAHIDUL ALAM

샤히둘 알람을 석방하라

방글라데시: 언론 인터뷰로 징역 14년 위기에 처하다

DATE

2018.08.07

다음의 주소 중 하나 또는 전부에
2018년 9월 18일까지 탄원편지를 보내세요.
또한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외교관
(대사관)에 사본을 보내세요.

TO

아사더자만 칸 방글라데시 내무부장관

Bangladesh Secretariat

Asaduzzaman Khan Kamal

Dhaka

Bangladesh

Mobile: +880 1 71 154 1569

Tel: +880 2 957 4800

Fax: +880 2 913 3498

Email: minister@mha.gov.bd

작성시 호칭: Honourable Home Minister

방글라데시 경찰총장

Inspector General of Police

Mohammad Javed Patwary

Police Headquarters

Dhaka

Bangladesh

Tel: +880 2 951 4444, +880 2 951 4445

Fax: +880 2 712 5840

Email: ig@police.gov.bd

작성시 호칭: Dear Inspector General

방글라데시 총리실 국정자문위원

Political Affairs Advisor to Bangladesh Prime Minister

H.T. Imam

Prime Minister's Office

Dhaka

Bangladesh

Tel: +880 2 912 9997

E-mail: advimam@pmogov.bd; htimam55@gmail.com

작성시 호칭: Your Excellency

사진작가이자 사회활동가인 샤히둘 알람^{SHAHIDUL ALAM}이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법 57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학생 시위에 관해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 기소된 샤히둘 알람은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샤히둘 알람(Shahidul Alam)은 방글라데시의 저명한 사진작가이자 활동가로, 2013년 제정된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개정)법 57항 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카의 한 하급법원 역시 2018년 8월 6일 그에게 7일간의 경찰 구류 처분을 내렸다. 방글라데시의 경찰 구류는 불법 무력을 사용해 고문 및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 심지어는 구금 중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샤히둘 알람은 법정 출석 당시 걷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구류 중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샤히둘 알람은 2018년 8월 5일, 알자지라 영어권 채널과 인터뷰를 한 직후 처음으로 구금되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계속되는 학생시위를 직접 취재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그날 인터뷰에 앞서, 헬멧을 쓰고 대형 칼과 철봉을 든 사복 차림 남성들이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를 취재 중이던 지역 언론사의 사진기자들과 기자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기술법 57항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 7년에서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법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 법은 반대세력을 와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샤히둘 알람을 양심수로 여기며, 그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샤히둘 알람이 기소된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과속하는 버스에 치여 학생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당한 사건 이후, 학생들이 도로 안전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그 배경이다.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시위였지만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 과도한 경찰력이 시위 진압에 동원됐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

영어 또는 방글라데시어,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즉시 탄원해주세요.

- 양심수인 샤히둘 알람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고,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십시오. 그는 인권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것입니다.
- 활동가, 인권옹호자, 기자, 지식인, 야당 구성원 및 일반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십시오.



SHAHIDUL ALAM

샤히둘 알람을 석방하라

방글라데시: 언론 인터뷰로 징역 14년 위기에 처하다

DATE

2018.08.07

다음의 주소 중 하나 또는 전부에
2018년 9월 18일까지 탄원편지를 보내세요.
또한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외교관
(대사관)에 사본을 보내세요.

TO

아사더자만 칸 방글라데시 내무부장관
Bangladesh Secretariat

Asaduzzaman Khan Kamal

Dhaka

Bangladesh

Mobile: +880 1 71 154 1569

Tel: +880 2 957 4800

Fax: +880 2 913 3498

Email: minister@mha.gov.bd

작성시 호칭: Honourable Home Minister

방글라데시 경찰총장

Inspector General of Police

Mohammad Javed Patwary

Police Headquarters

Dhaka

Bangladesh

Tel: +880 2 951 4444, +880 2 951 4445

Fax: +880 2 712 5840

Email: ig@police.gov.bd

작성시 호칭: Dear Inspector General

방글라데시 총리실 국정자문위원

Political Affairs Advisor to Bangladesh Prime Minister

H.T. Imam

Prime Minister's Office

Dhaka

Bangladesh

Tel: +880 2 912 9997

E-mail: advimam@pmogov.bd, htimam55@gmail.com

작성시 호칭: Your Excellency

배경 정보

2018년 8월 5일, 샤히둘 알람은 밤 10시 이후 다카 단몬디의 자택에서 사복 차림의 괴한 무리에게 납치를 당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괴한들은 수사과(Detective Branch)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위층으로 올라갔고, 곧 샤히둘 알람을 데리고 내려와서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그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 괴한들은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여 가린 후, 자신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가지고 갔다. 경비원들은 난폭하게 제압당해 갇혀 있었다. 이웃 아파트에 살던 샤히둘 알람의 파트너는 샤히둘이 끌려가면서 지른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지만, 그를 태운 차량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2대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최근 도로 안전을 요구하며 계속되고 있는 시위 운동은 대부분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주축으로, 방글라데시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진행하던 시위였으나 갑자기 사복 차림으로 헬멧을 쓴 남성들이 나타나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이들은 큰 칼과 철봉을 휘두르며 어린이들과 현장을 취재하며 직무를 수행하던 기자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샤히둘 알람을 비롯해 이러한 습격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기록한 사람들은 이제 보안군의 추적을 받고 있으며, 친정부 성향의 방글라데시 학생동맹(BLC)과 집권여당 아와미동맹의 학생전선 역시 보안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2013년 정보통신기술(개정)법은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반대 의견을 보호하거나 이들을 위협하는 무장단체를 처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전략과 새로운 법을 도입하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눌렀다.

최소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법은 방글라데시에서 비판적인 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호하게 규정된 이 조항을 이용해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주권과 무결성 또는 안전을 위해", 또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믿음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모두 기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혹한 법을 이용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인 기자들에게 형사혐의를 덮어씌움으로써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고 있다. 2016년 12월, 지면 및 TV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나즈물 후다는 수도 다카 외곽의 의류공장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현장을 취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 중 심한 구타를 당했으며, 이후 정보통신기술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편지에서

Dear _____,

I am writing to express my grave concern regarding the detention of a photographer and activist, Shahidul Alam who is facing up to 14 years in prison because of being interviewed on a news channel, discussing ongoing student protests in Bangladesh. There is no reason that people like Shahidul to be detained for legitimate use of their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I urge you to releas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Shahidul Alam, who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nd drop all charges as he has been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ensure that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journalists, academics and members of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are ab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freedom of association.

Yours sincerely